

'22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9.28	회의실	9/12	4	1	14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고아라·곽선희·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임동훈·조경완·최정욱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윤근수(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경영심의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2	0	1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 ON> 세트에 맞게 출연자 머리 스타일, 의상 등 점검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점검강화 등 의견 반영 권고 조치	'22.9.
"	<시사 ON> 지역 소멸 관련, 통계자료 다양한 시각화 자료 부족 아쉬움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점검강화 등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지역 소멸 관련 우리 지역 실태 파악 및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 바람	-<뉴스투데이> 빈집, 4년 만에 2배 증가(10.7), <뉴스데스크> 전남도,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선정 노력(10.1) 등 관련 내용 보도 조치	"
"	<시사 ON> 내용과 음악이 어울리지 않고 토론자의 말 잘 들리지 않는 등 시청 방해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점검강화 등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뉴스투데이>,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배치기준표, 여백 없이 빼곡해 시청 불편함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점검강화 등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전남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 25.9% '전국 최고'(10.6), , 공보의도 없으면(9.28) 등 관련 내용 보도 조치	"
"	횡단보도 우회전, 직진 안전사고 관련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계도기간 사고 감소(10.12), <뉴스투데이>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오늘부터 시행(10.12), <뉴스투데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다(10.14) 등 관련 내용 보도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코너, 다양한 화면 변화 부족 아쉬움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출연자 사전점검 등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맛집 소개 식상	-‘테이스티 남도’ ‘파인다이닝’ 등 주제별 제작 방송 조치	"
기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 바람	-편성과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총 건수		1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시사 ON> 세트에 맞게 출연자 머리 스타일, 의상 등 점검 필요 (고아라, 최정욱)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세트 배경색을 미리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	<시사 ON> 지역 소멸 관련, 통계자료 다양한 시각화 자료 부족 아쉬움(오광호)	통계자료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픽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겠음	○		
"	지역 소멸 관련 우리 지역 실태 파악 및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	지역 소멸과 관련한 토론회나 보도를 지속하겠음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바람(오광호)				
"	<시사 ON> 내용과 음악이 어울리지 않고 토론자의 말 잘 들리지 않는 등 시청 방해(임동훈)	음악 선곡과 음량 조절 등에도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겠음	○		
"	<뉴스투데이>,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배치기준표, 여백 없이 빼곡해 시청 불편함(송경용)	기사를 이해하는 데 컴퓨터 그래픽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음	○		
"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 바람(심상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공공의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취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음	○		
"	횡단보도 우회전, 직진 안전사고 관련 관심 바람(임동훈)	바뀐 교통법규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코너, 다양한 화면 변화 부족 아쉬움(곽선희)	시청자가 고정된 영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화면 다양화 어려움이 있음	○		
"	<본방을 보자> 맛집 소개 식상(이상길)	월간 본술랭을 월별로 새롭게 기획 구성해보겠음	○		
기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 바람(오광호)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9월)

일 시		2022. 9. 28.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고아라, 객선희,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이상길, 임동훈,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 경영심의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책임을 맡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중 다수는 어떤 감성을 느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커서 스트레스를 갖기도 하겠다, 오늘은 MBC 방송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자리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이번에 미국 엘에이에 가서 한인 축제나 한식문화를 통해 한류 문화를 보았다. 한식은 백인사회 주류까지 퍼지고 있는 큰 흐름을 느꼈다. 상당수 음식이 남도 것이었다. 이걸 통해서 로컬방송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진행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겠다는 결과를 가졌다.
- 조경완 위원장 : -상 받은 거 그 내용 좀 알려달라.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선거비 미반환 관련하여 선거비를 안 내고 또 출마를 한 걸 보도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검사가 도망가는 장면 때문에 화제가 됐던 곡성 산사태 보도는 우종훈, 임지은 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
- 조경완 위원장 : -계획 중에서 광주와 페스티벌 설명을 해달라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광주와 관련된 관광콘텐츠를 해보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MBC가 협의하게 됐다. 10월부터 세 번 녹화할 예정이고, 유명 뮤지션이 광주에 와서 ACC 하늘마당 등에서 할 예정이다. 김다현, 라포엠 등은 확정이 됐고 계속 섭외가 되고 있다. 10월에 내용이 확정되면 티저 예고 등 스왑이 나갈 것이다. 광주의 관광명소를 전국에 알리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 실황 자체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지상파에서도 저희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에 공동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공동 기획이고 예산 집행과 실행은 광주관광재단과 실무 단위에서 하게 된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고아라 위원 : -<시사 ON>은 토론 시 용어를 설명해 주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아쉬운 점은 전체적인 세트 배경이 검정으로 되어있어 사회자나 출연자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되어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9월 9일 여성 전문가분의 의상이 배경과 같은 블랙이어서 배경에 묻히고, 재킷이 너무 타이트해 차림새가 매끄럽지 못했다. 사회자 두 분도 자칫 너무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 세미 캐주얼 보다는 매끄러운 정장 차림이었다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어 보였을 것 같다.
-<문화콘서트 난장> 밴드 스페셜을 시청했다. 실력이 우수한 밴드가 많았다. 일상적으로 들을 수 없는 밴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섭외해줘 시청자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대부분 사회자가 있는 상태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사회 없이 연주로 흘러가는 형태였다. 사회가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음악에 집중도가 높았다. 음악을 하는 처지에서 인디밴드가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다. <난장> 무대가 뮤지션들의 데뷔무대, 꿈을 꾸는 무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좋다. 무대 조명 및 Led 배경 영상도 곡에 따라 바뀌어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밴드가 바뀔 때마다 소개하는 짧은 프로필 영상이 추가 제작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조경완 위원장 : -<난장>은 사회 없이 앞으로도 하나?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그런 것은 아니고, 나주시와 협약으로 난장곡간에서 제작을 하다가 지금은 계약된 제작 분량이 끝났다. 그래서 제작된 것을 재제작해서 편성하고 있다. 테마별로 꾸며서 하는 것이다. 주제

를 가지고 가니 집중력 있게 어필한 거 같다.

○ 송경용 위원 : -그럼 지금은 제작이 끝났나?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나주와는 올해는 끝났고 내년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

○ 박선희 부위원장 :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코너가 지난번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창선 씨 노래할 때 화면이 고정된 것보다는 약간만 확대하거나 원근법으로 화면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경아 씨가 노래 부를 때도 한 화면의 고정정보는 배경도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색채의 배경이었으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 것 같았다. <오징어 게임> 수상 소개 시 글로벌 문화 강국의 자부심에 공감하며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했다. 동구 여행자의 집은 여행상품 개발 소개 등 신개념 관광 서비스의 콘텐츠를 도입한 좋은 장소 소개여서 관심 있게 보았다. 무료 차 제공 시 1회용 커피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리하면 된다는 소개 코너에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고 밖으로 나온 모습은 거슬렸다.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9월 17일 뉴스본방 소개 부분이 유용했다. 추석 행사 소개와 추석 명절 선물 준비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 소개 및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소개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줌인 노래방은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기에 저희가 카메라워킹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출연자가 노트북 카메라 같은 것을 놓고 하므로 그 부분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동구 여행자의 집은 LTE로 카메라 한 대로 워킹하는 것을 체크하고 왔는데 이것까지 보셨다니 놀랍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김두식 아나운서가 유튜브 기준 5분 40초경 보행자사고에 관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시 일시 멈춤이 의무화됐고 멈춤을 하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말씀을 해줬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준법의식을 심어 주었다. 강제성을 느끼게 해주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줬다.

-<뉴스투데이>에서 시작 부분에 미리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를 알려주어 보기 편할 뿐 아니라 바쁜 사람들이 보기도 좋았다. 하지만 보는 중간에 1분 23초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 보기 불편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배치기준을 표로 작성해줬는데 표 안에 숫자가 너무 여백 없이 빼곡하게 적혀있어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뒤에 아동의 종류별로 수치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줘 비교하기 수월했다. <올해 쌀농가 손실 '1조 8천억 원' 추정..정부 뭐하나> 기사에서 200평 쌀농사 2022년 손익계산서 비용을 수입과 지출로 따로 분류하여 퍼센트로 정리했다. 저처럼 농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2022년 쌀농사의 수입, 지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정부·쌀 생산비 조사 현황을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여 보여주는 부분에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자의 톤이 안정적이라 듣기 편했고, 마지막 멘트 “쌀 가격 폭락은 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돈이 나오지 않는 곳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되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 또, 이러한 긴 문장을 적절한 템포로 읽어줘서 듣기 수월했다.

-사장님께서 LA에 다녀오셨는데 그런 좋은 일정이 있으면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사에 힘이 돼주면 좋지 않을까. 지자체나 기업과 함께하며 광주MBC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낙곤 사장 : -고맙다. 검토하도록 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그래픽 시지를 의뢰하나?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 그래픽을 만든다. 정보가 많거나 부족해도 불편할 수 있어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현업에 바쁜 기자들이 기사 쓰기도 바쁘는데 그래픽자료 같은 것을 잘 못 챙기는 경향이 있을 거 같다.

○ 심상돈 위원 : -<시사인터뷰 오늘>에서 세상 돋보기 정효진 변호사가 출연해 가처분, 기각, 인용 등 잘 모르는 법제도,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도움이 되고 좋았다. 앞으로 경제용어, 의학용어에 관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다.

-뉴스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싶다. 광주 공중보건원이 점점 없어진다는 기사다. 지역 의료기관이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목포의료원 원장이 설명했고, 전남의 공중보건원 배치 현황을 표로 보여

졌다. 작년보다 의사가 25명이 줄었는데 그 의미가 다른 직종과 좀 달라서 매우 큰 변화다. 그런 것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으면 했다. 공중보건 의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의전원이 2005년에 도입이 됐고 여학생 비중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게 의전원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두 개 밖에 없다. 교육에 관한 것은 10년 넘게 지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전원 폐지된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 이제는 다시 공중보건의를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야 할 남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나와서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틀린 얘기다. 기사 내용은 공중보건의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목포에 의과대학을 만들면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까? 그렇지 않다. 목포에 만들면 서울에서 내려와 다시 서울로 갈 것이다.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만들면 거기를 졸업한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사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에만 종사하는 면허를 만들어서 그쪽 일만 하게 하는 것이다. 9월 16일 남구 보건소장이 임명됐다. 의사가 아닌 보건행정과장이 내부승진을 해서 올라갔다. 분명 지역사회보건법에는 보건소장은 의사가 해야 한다. 단 의사가 없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구청장이 개방형 직위를 없애고 내부승진을 시켰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뉴스의 초점은 이 지역에 일하고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고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정확히 맥을 짚었어야 한다.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목포MBC 기사를 받은 것인데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여러 차례 공모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게 남구청 발표인데 이게 아닌 것 같다.
- 심상돈 위원 : -작년 6월 30일 자로 그전에 근무하던 보건소장이 정년이었다. 그때도 보건행정과장을 내부승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서 계속 접촉을 했다. 6월에 개방형 공모제를 하겠다고 시행령을 만들어 공모했다. 두 분의 의사 중 한 분이 하기로 했는데 보건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보건소장이 정년 하고 나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고 7월 20일 재임용이 됐다. 21년 7월 임용이 돼 근무하다가 22년 7월 1년 만에 사직을 한다. 사직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다. 8월 초에 개방형 임기 직위를 시행령으로 삭제한다. 그리고 나서 9월 16일에 내부승진으로 한다.
- 조경완 위원장 :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공모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건가?
- 심상돈 위원 : -그건 틀린 얘기다. 공모한 적도 없고 개방형 임기제를 하면 공모를 해서 구해야 한다. 그래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삭제하고 아예 안 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어서 행정소송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다.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는 의사가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내에 인사 적체도 많이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했다면 다른 광역시, 다른 데도 당연히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어떤 의미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의사보다 행정관료가 뛰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이 보건소장을 의사로 구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가진 특수한 자에게 보건소장을 하도록 법이 정해놨을 텐데 남구청 해명대로 아무도 안 와서 할 수 없이 공무원을 시켰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 심상돈 위원 : -노조의 반응도 공무원노조가 특권적인 지위를 이제는 왜 의사만 하느냐, 특권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승진시켰다고 한다. 보건소장을 의사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불법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MBC 기자들이 잘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 최정욱 위원 : -시기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으로 민감한 시기다. 의사가 있는 것과 일반인이 있는 게 대응 자체가 다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 그룹 '길'을 통해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국악의 전통적 선율을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 반주 음악을 더해 대중성을 높

여 많은 이들에게 국악의 색다른 맛을 알린다는 점이 아주 좋았다. 다만, 연주 한 곡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짧게 짧게 끊어진 연주만 들어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개량종, 토종, 재래종 등 160종의 씨앗 농사를 짓는 젊은 농부의 인터뷰 중 밥상 위의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그걸 지키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성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다양한 농산물 각각의 맛과 쓰임이 주는 음식문화를 통해 직접적인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농촌과 현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젊은 농부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꼈다. 대구의 업사이클링센터에서는 ‘또 다른 삶의 활용’이라는 의미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을 소개했는데, 청바지를 기증받아 다양한 소품으로 재탄생 시킬 때 지역의 시니어센터 소속 어르신들을 통해 재탄생 되는 제품들이 꽤 의미 있다고 느꼈다. 자연과 상생할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상생하는 모습도 보여주어 좋았다.

-<시사 ON> ‘줄어드는 인구, 지역 소멸 해법은?’에서 ‘점점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 ‘저출산 및 고령화 영향으로 농촌 소멸위기 직면’, ‘전남 청년 인구 유출 5년째 증가세’, ‘국가 불균형 성장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 심화’ 등 모두 현재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문구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예측보다 9년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간단히 보여주긴 했지만, 더 다양한 시각화 자료들이 있었다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2050년에는 인구 40% 이상이 노령인구로 예측되며, 국가존립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구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3.5%의 증가율로 1위지만, 광주는 -0.2%로 7위 그리고 전남은 -0.6%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농촌 지역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농 정책 확대와 청년 농부들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한다. 우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청자로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이상길 위원 : -<본방을 보자> 5.18, 광주FC 축구 1부리그 등 이 지역뉴스를 잘 선별해서 전달해서 좋았다. 본방토크도 우리 지역 관련된 정치 토크, 윤석열 대통령 순방 평가, 가처분 등 전 국민의 관심사부터 우리 지역 이슈까지 잘 전달해서 광주 전남 여론 흐름을 대략 알 수 있어 좋았다. 가봐야 할 여행 소개도 광주 전남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점이 대단히 좋았다. 맛집 소개가 다른 데서 다 하는 먹방 같아서 너무 식상하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데 맛집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 임동훈 위원 : -9월 20일에 방영된 <본방을 보자> 두 번째 코너에서 질병관리청 전문가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대한 현재 발병률, 예방접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 좋았다. 특히, 전문가가 예방접종 기간을 설명할 때 접종대상별 접종 기간을 분류한 이미지를 함께 활용해 보여줌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인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설명할 때 동시 접종이 가능한 이유도 함께 설명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시사 ON> 토론 ON 코너를 통해 세 명의 토론자들과 광주광역시의 예산에 대해 지방채, 이월예산, 주민참여예산 제도 세 가지로 나눠 각 예산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뿐만 아니라 각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점까지 자세하게 다루어져서 좋았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과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지난해와 다르게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참여 방법을 설명할 때, 신청과정 및 기간을 이미지를 활용해 한눈에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좋았으나 신청하는 홈페이지 링크가 따로 없어서 아쉬웠다. 또, 광주광역시 채무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함께 나오는 음악이 어울리지 않아 내용의 몰입감을 방해하고 음악 소리가 커서 설명하는 토론자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최근에 정착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

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직진 차들은 그냥 지나간다. 이걸 아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다뤄서 이것까지 바뀌야 하지 않을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해 걸어오고 있다면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문화정착이 이번 기회에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남구보건소장은 뜨거운 감자였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진료의 기능이 아니다. 지역 의료기관들을 조율해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의료기관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다. 같은 의사들이 해야만 협조가 되고 제어가 되는데 이런 관료주의 성향이 있는 직원들이 보건소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보건소에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재난 상황이나 감염병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단순히 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다.

- 최정욱 위원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안정화 된 것 같다. 줌인 노래방, 뉴스 본방 등도 자리를 잘 잡고 계속 개선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반영이 되는 걸 봐서 소통과 전달이 된다고 생각했다.

-<시사 온>이 요새 내용이 참 좋다. 광주 전남 지역에 필요한 시사적인 부분,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 <시사 온>에서 온이 온에어 뜻도 있지만 따듯하다는 뜻도 있다고 한다. 시사 자체가 따듯할 수 있겠는가? 세트 배경 자체가 블랙이고 정장이 딱딱하다. 조화롭고 밸런스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검은 바탕이 집중도가 좋은 대신에 그게 화려하고 따뜻해지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 송경용 위원 : -대학 납부금 동결을 해온 지가 오래됐다. 대학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대학에서는 기부금을 혈어서 임금을 주고 있다. 그것은 몇 년 쓸 수가 없다. 도시가스요금이 오른다고 신문에 나온다. 도시가스요금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한다. 에너지는 투자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올려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 기업이 그냥 막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타당한 것은 관철해줘야 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안 지켜주면 누가 투자를 하겠나.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없는 거다. 원칙이 무너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 오광호 위원 : -광주시민, 전남도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기능과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게 존재 목적이다. 고객, 시민에게 안전하게 가스를 제공하고 소외된 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소외된 계층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 것을 책정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다. 저희는 소외계층 요금감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그 결과에 따라 인상을 하게 돼 있는데 결과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동결을 한다. 회사는 모든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 최근 학동, 화정동에 큰 아픔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기본과 원칙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기본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정착이 되어야 후손들도 광주에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면에서 행정이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조경완 위원장 : -회의자료를 보면 전월 회의에 나온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답변처리 결과를 보면 성실하게 해줬다. 시청자위원회는 옴부즈맨 기능도 있고, 보도나 편성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좋다. 혹시라도 제작진에게 전달할 때 너무 경직되게 전달하면 편성과 보도의 자율을 침해하는 게 되어버린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참고해서 상식적으로 제작하면 시청자위원회의 존재 의미는 충분하리라고 본다. 상대적이고 취향에 따른 발언은 제작이나 보도하시는 분이 참고하면 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나온 위원님들 의견은 고민하고 나온 것인데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10월 20일 엘피충전소가 담양에 오픈하고, 10월 7일 창사 58주년 기념식을 회사 내부에서 간단히 한다는 것 말씀드린다. 해마다 해온 것이지만, 창사 기념일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해서 한글로 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을 화면 오른쪽 위에 써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문화가 여러 가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도한다는 것 말씀드린다. 끝.